

# 경남 평생학습 Brief



Brief 제6호 | 발행처 :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 발행일 : 2021년 09월 17일

| 집필자: 윤지수 팀장(jsyun@gndamoa.or.kr)

## 경남 성인의 문해력 수준은?

- 2020년 경상남도 성인문해능력 조사에 따르면 만18세 이상 경남 성인의 14.6%인 약 41만명 정도가 초등 미만의 문해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무학력자의 한글 학습 경로는 응답자의 53.2%가 독학으로(가족으로부터) 배웠으며, 그 밖에 평생교육기관 (8.7%), 종교시설(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은 만 18세 이상 성인의 74%(약 208만명)이며 생활문해능력 점수는 100점 환산 시 평균 79.5점으로 조사됨.  
\*‘수준 1’(초등학교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8.9%, ‘수준 2’(초등학교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5.7%, ‘수준 3’(중학교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11.3%.
- 학력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 높을수록, 중소도시 지역일수록, 60세 미만 연령층일수록 문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문해수준별 생활만족도 및 정치관심도는 문해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현재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4.9%가 만족함. 정치관심도는 49.3%가 ‘관심있음’으로 조사되었음.
- 문해능력 수준별 맞춤형 교육, 문해교육에 대한 영역적 범위 확대, 문해교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1 문해능력 조사

### 2020년 경상남도 성인문해능력 조사

만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문해력 실태 파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년 단위로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시·도별로 성인문해능력 조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도 단위에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 최근 경남은 2020년 경남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와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평생교육법령상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성인문해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에서는 ‘일상적인 활동과 가정, 일터, 지역사회 등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글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문해로 정의했고, 유네스코(UNESCO)는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단순 읽고, 쓰기형태의 문해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해영역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문화문해, 가족문해, 정보문해, 금융문해(양명희 2013) 등의 형태를 들 수 있으며, 평생교육 영역에서 ‘문해’외에 ‘literacy’의 번역어로 ‘문식성’, ‘리터러시’, ‘소양’ 등의 용어도 쓰이고 있다(허준·이경민·이진희, 2016).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기초문해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에 따르면 기초 문해능력이 부족하여 초등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인구가 8.7%, 기초 문해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복잡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학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인구는 11.4%로 조사되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경남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기초 문해능력 현황을 파악하고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조사개요 및 문해수준

조사대상은 경남도내 모든 가구 내 만 18세 이상 남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가구방문 대면면접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유효표본은 총 1,007명, 43개 검사문항으로 실시되었다.

표 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기간	2020. 10. 12. ~ 2021. 1. 29.
유효표본	1,007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차 성인문해능력 조사 표본 704명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추가조사 표본 303명)
측정도구	문해능력 측정을 위해 개발된 총 43개 검사문항 (A유형 3개, B유형 20개, C유형 20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대면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생활문해력 수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준 1'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며, '수준 2'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을 의미한다. '수준 3'은 단순한 일상생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을 의미한다.

표 2) 생활문해력 수준 및 정의

구분	필요수준	내용
수준 1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을 의미함.
수준 2	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을 의미함.
수준 3	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을 의미함.
수준 4 이상	중학 학력 이상 수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을 의미함.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2 응답자 현황

### 응답자 현황 및 수준별 추정인구

전체 1,007명 조사, 여성 50.1%, 50대 20.9%, 대졸 이상 39.6%, 300-399만원 27.9%, 취업자 69.05, 중소도시 거주자 79.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조사됨

전체 1,007명을 조사하였으며, 표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 중 여성이 50.1%(505명), 연별별로는 50대가 20.9%,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20.9%,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39.6%, 월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원 27.9%, 취업자가 69.0%, 중소도시 거주자가 79.9%로 계층 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3)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Base=전체	가중이전		가중이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 전체 ■	(1,007)	100.0	(2,816,405)	100.0	
성	남성	(502)	49.9	(1,410,412)	50.1
	여성	(505)	50.1	(1,405,993)	49.9
연령1	18-29세	(171)	17.0	(450,958)	16.0
	30-39세	(148)	14.7	(405,864)	14.4
	40-49세	(175)	17.4	(538,219)	19.1
	50-59세	(210)	20.9	(582,532)	20.7
	60-69세	(155)	15.4	(453,754)	16.1
	70-79세	(115)	11.4	(244,267)	8.7
	80세 이상	(33)	3.3	(140,811)	5.0

연령2	18-59세	(704)	69.9	(1,977,573)	70.2
	60세 이상	(303)	30.1	(838,832)	29.8
학력1	무학	(42)	4.2	(136,072)	4.8
	초졸	(93)	9.2	(239,757)	8.5
	중졸	(102)	10.1	(268,336)	9.5
	고졸	(371)	36.8	(1,043,831)	37.1
	대졸 이상	(399)	39.6	(1,128,408)	40.1
학력2	중졸 미만	(135)	13.4	(375,830)	13.3
	중졸 이상	(872)	86.6	(2,440,575)	86.7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4)	8.3	(237,923)	8.4
	100~299만원	(242)	24.0	(660,401)	23.4
	300~399만원	(281)	27.9	(792,520)	28.1
	400~499만원	(215)	21.4	(607,602)	21.6
	500만원 이상	(185)	18.4	(517,960)	18.4
경활상태	취업	(695)	69.0	(1,954,995)	69.4
	비취업	(86)	8.5	(228,557)	8.1
	비경활	(226)	22.4	(632,853)	22.5
지역구분	중소도시	(805)	79.9	(2,239,502)	79.5
	농산어촌	(202)	20.1	(576,903)	20.5

문해능력 수준별 비율을 살펴보면, '수준 1' 8.9%, '수준 2' 5.7%, '수준 3' 11.3%, '수준 4 이상' 74.0%로 나타났다. '수준 1' 추정인구는 251,764명, '수준 2' 161,155명으로 예측된다. 중학 학력 이상 수준의 문해력을 갖춘 '수준 4 이상' 2,084,422명으로 추정되었다.

만 18세 이상 문해능력 수준별 비율은 '수준 1' 8.9%, '수준 2' 5.7%, '수준 3' 11.3%, '수준 4 이상' 74.0%

표4) 문해능력 수준별 비율 및 추정인구

문해능력 수준	수준 정의	비율 (%)	추정인구 (명)	사례수 (명)	점수 (100점)
수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8.9	251,764	83	1.9
수준 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 (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5.7	161,155	62	17.1
수준 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 (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11.3	319,063	120	66.7
수준 4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중학 학력 이상 수준)	74.0	2,084,422	742	95.7
합계		100	2,816,405	1,007	79.5

### 3 조사결과

#### 성인문해력 조사결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 1'을 전국과 비교했을 경우, 경남의 '수준 1'은 251,764명(8.9%), 전국은 2,001,428명(4.5%)으로 추정되며, '수준 4 이상'은 경남 74.0%, 전국 79.8%로 전국에 비해 5.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전국에 비해 '수준 1'과 '수준 2'의 비율이 높고 '수준 4 이상'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도시보다 농산어촌 지역의 문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농촌지역 중심으로 문해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문해능력 수준별 경남-전국 비교

(단위: %)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이상	만 18세 이상 인구(명)
전국	4.5	4.2	11.4	79.8	44,081,271
경남	8.9	5.7	11.3	74.0	2,816,405

성별 문해능력 수준을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4 이상'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수준 1'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 능력을 갖춘 '수준 4 이상'은 남성(81.4%)이 여성(66.6%)대비 약 14.8%p 높고, 100점 환산 점수도 남성이 85.2점으로 여성(73.8점)보다 높아 남성의 문해능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여성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학력이 중졸 미만인 만 18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 9명 이상(92.0%)은 초등 또는 중등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 1'~'수준 3'의 문해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이 중졸 이상인 만 18세 이상 성인의 84.2%는 중학 학력 이상의 수준인 '수준 4 이상'의 문해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 특성별 문해능력 수준

(단위: %)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이상	점수 (점/100점)	
■ 전체 ■	8.9	5.7	11.3	74.0	79.5	
성별	남성	4.5	4.6	9.5	81.4	85.2
	여성	13.4	6.9	13.1	66.6	73.8
학력	중졸미만	50.1	19.8	22.1	8.0	24.9
	중졸이상	2.6	3.6	9.7	84.2	87.9

\*Base: 만 18세 이상 성인

직업 및 고용형태별 문해능력 수준에서 농림어업종사자(66.6점), 비임금근로자(75.3점), 임시 및 일용근로자(75.7점)의 문해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자인 만 18세 이상(사례수:695명) 직업별 및 고용형태별 문해능력 수준을 점수별로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관리직 및 전문가(98.5점), 사무직(96.9점), 서비스 판매 종사자(87.7점), 기술직 및 노무종사자(78.2점), 농림어업종사자(66.6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91.4점)가 비임금근로자(75.8점)보다 15.6점 높고, 상용근로자(93.7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75.7점)보다 1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직업 및 고용형태별 문해능력 수준 분포 (단위: %)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이상	점수 (점/100점)
■ 전체 ■	5.3	4.3	10.2	80.3	84.5
직업					
관리직, 전문가	0.0	0.0	0.0	100.0	98.5
사무직	0.6	0.0	0.6	98.8	96.9
서비스 판매 종사자	3.6	2.1	9.2	85.2	87.7
기술직, 노무종사자	7.5	6.3	12.3	73.8	78.2
농림어업종사자	12.9	12.5	23.9	50.7	66.6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2.0	1.9	4.9	91.2	91.4
비임금근로자	9.3	7.3	16.9	66.5	75.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정규직)	1.2	0.6	3.9	94.2	93.7
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정규직)	7.6	10.5	11.6	70.3	75.7

\*Base: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만 18세 이상 성인

생활 만족도별 문해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76.5%)가 불만족하는 응답자(60.3%)에 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능력을 갖춘 '수준 4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류 활동 및 정치 관심도별로 살펴보면, 교류 활동이 한 달에 2~3번인 응답자(83.0%)와 정치적 관심이 있는 응답자(78.7%)에서 '수준 4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사회참여 인식별 문해능력 수준 (단위: %)

구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이상	점수 (점/100점)
■ 전체 ■	8.9	5.7	11.3	74.0	79.5
생활 만족도					
만족	8.8	5.0	9.8	76.5	80.8
불만족	10.0	9.9	19.8	60.3	72.3
교류 활동					
일주일 2~3번 이상	19.1	7.3	12.3	61.2	68.6
한 달에 2~3번	2.3	3.8	11.0	83.0	87.7
한 달에 1번 이하	8.8	6.4	11.1	73.7	78.8
정치 관심도					
관심있음	6.4	4.8	10.1	78.7	83.2
관심없음	11.4	6.6	12.5	69.4	75.9

## 문해점수 분석

문해점수는 '수준 4이상' 95.7점, 남성 85.2점, 18-59세 91.7점, 중졸이상 87.9점, 중소도시 82.3점으로 계층 내 상대적으로 높음

만 18세 이상 생활문해능력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평균 79.5점으로 조사되었다. 수준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수준 1' 1.9점, '수준 2' 17.1점, '수준 3' 66.7점, '수준 4 이상' 95.7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85.2점)이 여성(73.8점)보다 평균 11.4점 높았으며, 60세 미만의 연령의 평균점수가 91.7점,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82.3점)가 농산어촌(68.8점)거주자 보다 13.5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생활문해능력 점수

구분	총점		
	평균(점)	표준편차	
■ 전체 ■	<b>79.5</b>	<b>31.7</b>	
문해능력 수준	수준 1	1.9	1.2
	수준 2	17.1	7.3
	수준 3	66.7	7.8
	수준 4 이상	95.7	5.7
성별	남성	<b>85.2</b>	26.1
	여성	73.8	35.6
연령	18-59세	<b>91.7</b>	18.0
	60세 이상	50.9	38.0
학력	중졸 미만	24.9	30.6
	중졸 이상	<b>87.9</b>	22.1
지역 구분	중소도시	<b>82.3</b>	28.9
	농산어촌	68.8	39.1

월 가구 소득별 생활문해능력 점수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이 9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문해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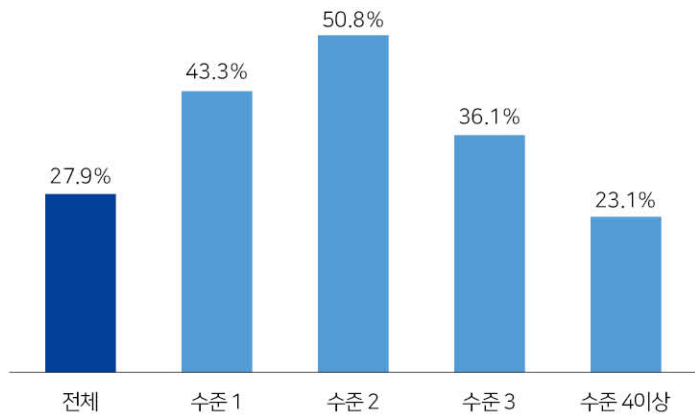
표 10) 월 가구소득별 생활문해능력 점수

구분	총점		
	평균(점)	표준편차	
■ 전체 ■	<b>79.5</b>	<b>31.7</b>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4.0	31.1
	100~299만원	71.7	33.0
	300~399만원	88.1	21.2
	400~499만원	88.7	23.2
	500만원 이상	<b>91.2</b>	21.9

수준별 문해교육 필요 여부

문해교육 필요 여부는 여성(31.2%),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61.5%), 비경제활동 인구(34.9%)가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문해교육 필요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문해능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수준 2'에서 50.8%로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준 1' 43.3%, '수준 3' 36.1%, '수준 4이상' 필요도가 23.1%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필요' 비율은 여성이 31.2%로 남성(24.7%)보다 높았으며, 월 가구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61.5%)에서 '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 '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4.9%로 취업자(26.5%)와 비취업자(20.9%)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문해능력 수준별 문해교육 필요 여부 - 필요함

표 11) 문해능력 수준별 문해교육 프로그램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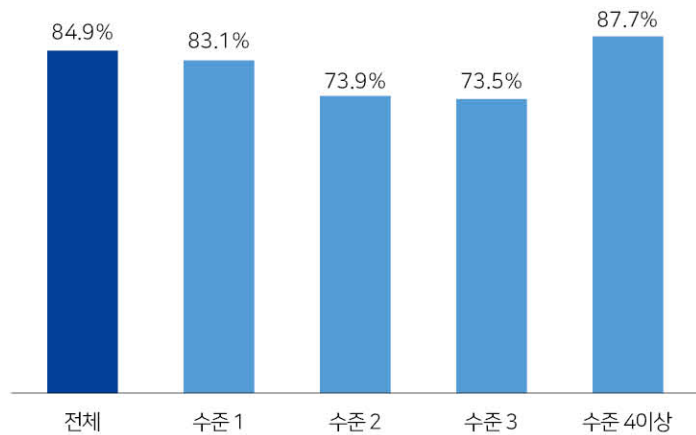
Base=만 18세 이상 성인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비율(%)	비율(%)
■ 전체 ■		27.9	72.1
문해능력 수준	수준 1	43.3	56.7
	수준 2	50.8	49.2
	수준 3	36.1	63.9
	수준 4 이상	23.1	76.9
성별	남성	24.7	75.3
	여성	31.2	68.8
연령	18-59세	22.6	77.4
	60세 이상	40.4	59.6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1.5	38.5
	100~299만원	24.1	75.9
	300~399만원	29.1	70.9
	400~499만원	21.3	78.7
	500만원 이상	23.4	76.6
경활 상태	취업	26.5	73.5
	비취업	20.9	79.1
	비경활	34.9	65.1



## 사회인식 및 사회교류 정도

문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및 정치관심도가  
높음

현재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4점 척도(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 + 만족하는 편)는 응답이 84.9%로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능력 수준별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준 4 이상'에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8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준 1' 83.1%, '수준 2' 73.8%, '수준 3' 73.5%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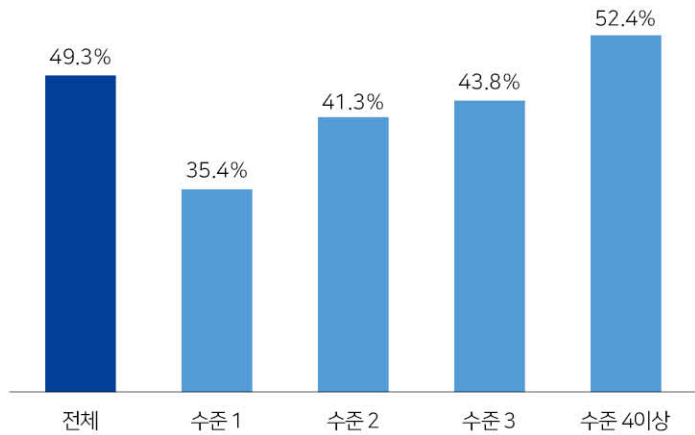
[그림 2] 문해능력 수준별 생활만족도(매우 만족+만족하는 편)

표 12) 문해능력 수준별 생활만족도

(단위: %)

Base=만 18세 이상 성인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하는 편	③ 불만족 하는 편	④ 매우 불만족	평균 (점/4점)
■ 전체 ■	3.1	81.8	14.6	0.5	2.9
수준 1	0.0	83.1	16.9	0.0	2.8
문해능력 수준 2	1.2	72.6	22.3	3.8	2.7
수준 3	0.7	72.8	26.5	0.0	2.7
수준 4 이상	3.9	83.7	11.9	0.4	2.9

정치관심도를 4점 척도(매우 관심, 약간 관심 있는 편,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로 살펴보면, '관심없다'(별로 + 전혀 관심 없음)가 50.7%로 나타났으며, '관심 있다'(매우 + 약간 관심)는 49.3%로 조사되었다. 문해능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수준 4 이상'에서 정치적 관심이 많다는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준 3' 43.9%, '수준 2' 41.3%, '수준 1' 35.4% 순으로 조사되었고, 문해능력 수준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문해능력 수준별 정치관심도(매우 관심이 많다+약간 관심이 있다)

표 13) 문해능력 수준별 정치관심도

(단위: %)

Base=만 18세 이상 성인		① 매우 관심이 많다	② 약간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평균 (점/4점)
■ 전체 ■		6.0	43.3	43.0	7.7	2.5
문해능력 수준	수준 1	5.0	30.4	41.9	22.7	2.2
	수준 2	4.8	36.5	43.6	15.1	2.3
	수준 3	4.3	39.6	51.7	4.5	2.4
	수준 4 이상	6.5	45.9	41.7	5.9	2.5

문해능력 수준별 사회교류정도를 살펴보면 친구, 친척 및 동료와의 친목도모를 위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만난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 달에 2~3번' 3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로 만난다는 응답은 '수준 1'에서,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은 '수준 1'~'수준 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사회교류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이하'가 35.4%로 가장 많았다.

표 14) 문해능력 수준별 사회교류정도

(단위: %)

Base=만 18세 이상 성인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번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한 번 이하	⑤ 거의 만나지 않는다
■ 전체 ■		7.0	15.8	34.1	35.4	7.7
문해능력 수준	수준 1	35.9	13.0	8.6	25.3	17.3
	수준 2	7.9	21.4	22.4	33.1	15.2
	수준 3	6.3	18.4	33.0	36.3	6.0
	수준 4 이상	3.5	15.3	38.2	36.6	6.3

## 4 정책제언

### 요약 및 제언

문해능력 수준별 맞춤형 교육, 문해교육에 대한 영역적 범위 확대, 문해교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공공-민간기관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사회 지향

아직 우리사회는 글자를 읽고, 쓰고, 셈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학습이 필요한 많은 도민들이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나아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2020년 경남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수준 1'(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8.9%(251,764명), '수준 2'(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5.7%(161,155명), '수준 3'(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11.3%(319,063명), '수준 4 이상'(중학학력 이상 필요 수준) 74%(2,084,422명)로 추정되었다. 응답자 중 학력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 높을수록, 중소도시 지역일수록, 60세 미만 연령층일수록 문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해능력 수준별(문해수준 1~4단계) 생활만족도 및 정치관심도는 문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현재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4.9%가 만족하였고, 정치적인 관심도는 49.3%가 '관심있음'으로 조사되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생활만족도 및 정치적 관심도, 사회교류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해능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평생학습사회를 추진할 수 있다. 삶의 풍요와 함께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해교육이 필요하며,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해능력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다. 현재의 문해능력 수준은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문해능력 수준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문해자들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실현하여 더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해교육에 대한 영역적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문해교육은 단지 읽고, 쓰기, 셈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는 다양성, 복잡성, 정보성으로 움직인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문해교육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바뀔 때 따라 문해영역의 범위 및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AI 및 VR의 발달로 우리는 새로운 비문해자가 계속해서 양산될

수 있다. 정보기술 문해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일상 생활 또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문해교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다. 교육의 3대 요소인 학습자-교사-프로그램 모두 핵심요소이지만 문해영역에서는 문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해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따라 학습자의 인생 및 프로그램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해교육의 수준별 교육과 영역별 확대에 따른 문해교사의 전문성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해교육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민간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여 학습자의 실태파악, 교사자의 전문성 확보, 통합시스템 운영 등의 형태로 체계성 및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

양명희(2013), 문해교육의 개념과 내용 분석 연구, 인문연구 67, pp.319-348.

허준·이경민·이진희(2016),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지형, 평생교육학연구 22(4), pp.1-26.

이 글은 「2020년 경상남도 성인문해능력조사」(경남평생교육진흥원, 2020)을 요약·수정하여 작성하였다.

경남 평생학습 Brief는 경남 평생학습 현황 및 주요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국내외 선진정책 제도를 소개하는 정책소식지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견해이며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